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한일 신문 사설 비교 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

김선영*
ksy5776@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연구 문제1: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주요 신문 사설 보도량 비교 |
| 2.1 신문 사설의 영향력 | 4.2 연구 문제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주요 신문 사설 의제 비교 |
| 2.2 정상회담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4.3 연구 문제3: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주요 신문 사설 논조 비교 |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5. 결론 및 시사점 |
| 3.1 연구 문제 | |
| 3.2 연구 방법 | |

주요어: 북미정상회담(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한국 신문(Korean Newspapers), 일본 신문(Japan Newspapers), 신문 사설(Newspaper Editorial), KH 코더(KH Coder)

1. 서론

미디어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나 이슈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의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의제 설정의 역할을 형성하는 매체 중에 신문은 기사 제목, 지면 크기, 사진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독자들 머릿속에 상(像)들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신문 사설은 의제 설정 기능을 통해 독자들이 신문사가 제공해주는 쟁점이나 이슈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이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해왔다.

사설은 일반 보도기사와 달리 독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이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¹⁾ 최근에는 사설의 해설기능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슈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강하지

* 쓰쿠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 연구과 박사

1) 김호준(1998)『사설이란』서울: LG상남문고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사실이 사회의 의제 설정과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²⁾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사설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기관을 감시 및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일 뿐, 실제 신문에 실린 사설들을 읽다 보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고 규정하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보도처럼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미 신문의 사설을 비교 분석한 노보경과 반현(2019)³⁾은 미국 언론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보다 이번 회담의 결렬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반면, 한국 언론들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회담의 향후 과제 및 전망과 관련하여 한국의 보수지와 진보지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가 간 외교 이슈에 대한 신문 사설은 해당 국가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주장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의견 공간인데⁴⁾, 언론은 국가 간 외교 이슈를 보도할 때, 그 자체의 객관적 전달보다는 소속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리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⁵⁾ 따라서 동일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보도하는 내용과 관점은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접한 각국의 수용자들이다. 동일 사안에 대한 뉴스라 할지라도 이야기 전개 방법과 관점, 즉 뉴스 프레임이 다르다면 이를 접한 수용자들의 해석이나 의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⁶⁾ 따라서 각국의 언론사들이 동일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국가 간 언론보도를 비교분석 한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외교적 갈등 현안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⁷⁾⁸⁾. 이에 비해 정상회담과 같은 여러 국가의

2) 홍주현·김경희(2017)「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제19권 제1호, p.165

3) 노보경·반현(2019)「언어표현 기반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의 비교」『문화기술의 융합』제5권 제3호, pp.125-130

4) 이완수·배재영·박경우(2016)「아베 내각의 일본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에 나타난 보도 프레임의 역동적 과정」『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79호, p.114

5) 서라미·정재민(2007)「한중일 3국 신문의 8.15 보도 비교분석」『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37호, p.241

6) 이준웅(2001)「매체 효과와 사회 심리적 조건의 메커니즘: 문화계발 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신문과 방송』제377호, p.443

7) 김동윤·오명원(2015)「한일 언론과 일본군위안부: 보도 양상 및 미디어 프레임 분석」『일본근대학연구』제50호, pp.141-170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각 국가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상회담과 관련한 선행연구⁹⁾¹⁰⁾¹¹⁾들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이 된 국가가 주로 한국, 미국,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구성원인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행위자이다. 또한 북핵 문제와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해 더욱 견고화된 미일 동맹 체제는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아우르는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¹²⁾라는 점에서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주요 신문이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 신문이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국과 일본 신문의 사설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양국 신문의 시각 차이를 파악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실 세계가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보는 ‘현실 구성론’의 입장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의 신문이 각자의 사회구조 속에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하게 평가하고 규정을 내렸으리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신문 사설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사설이 국가 간 외교 이슈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논의의 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주요 신문들이 북미 정상들이 의논한 의제 가운데 어떠한 의제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으며, 또 어떠한 논조로 보도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양국 언론이 자국의 이익과 자국 정부가 제시한 외교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이 북미정상회담 문제와 같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외교적 현안을 보도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언론사는 국내 문제가 아닌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별 정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¹⁴⁾¹⁵⁾.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였던 북핵

8) 김희범·우형진(2016)「한국과 일본 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 프레임 유형 특성 연구」『미디어, 젠더 & 문화』제31권, pp.81-123
 9) 노보경·반현(2019) 상동, pp.125-130
 10) 설원태(2012)「한미정상회담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미디어, 젠더 & 문화』제21권, pp.41-72
 11) 진명지·박경숙(2020)「한국·미국·중국 신문의 미중정상회담 보도 내용 분석」『국제학논총』제31집, pp.169-193
 12) 최용한·이수형(2020)『북핵과도기 한국의 안보 정책 과제와 쟁점』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56
 13) 이완수·배재영·박경우(2016) 상동, p.106

문제는 그동안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따라 상당히 시각차를 드러내는 이념적 이슈¹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가 보도 태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국가별 보도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텍스트형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KH Coder'를 이용하여 양국 신문의 보도 양상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신문 사설의 영향력

신문 사설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 현안에 대한 해당 신문사의 주관적인 견해나 주장이 담긴 글이다. 또한 사설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해 논제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입장과 시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사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사설이 내포하고 있는 주장의 이면에는 해당 신문사의 견해와 지향하는 가치가 포함되어 일정한 색깔을 갖는다는 점¹⁵⁾과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 담론 방식 및 전략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킨다는 점¹⁶⁾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담론은 독자들의 의견 및 여론 형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신문의 이데올로기 성향에 초점을 맞춰 사설의 보도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그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설의 논조는 신문의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와타나베(2014)¹⁷⁾는 2002년 북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 신문이 북한에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과 진보 신문인

14) 김동윤·오명원(2015) 상동, pp.141-170

15) 서라미·정재민(2007) 상동, pp.237-269

16) 이완수·손영준(2011)「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재구성」『한국언론정보학보』제56권 제4호, p.177

17) 이지영(2019)『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담론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8

18) 노보경·반현(2019) 상동, p.126

19) 와타나베(2014)『2002년 북일정상회담 전후 일본 신문 사설 양상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아사히신문의 사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설의 논조는 신문사별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나타냈다.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신문 사설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홍주현과 김경희(2017)의 연구에서도 와타나베(2014)의 보고와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홍주현과 김경희(2017)는 이 논문에서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²⁰⁾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설의 논조는 신문의 이념 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연구도 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도했는지 한국의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 신문인 경향신문의 사설을 비교 분석한 이완수 외의 연구(2016)에서는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의 과거사 처리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²¹⁾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언론이 국가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파성보다,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애국주의적으로 경도(slant)되어 보도하는 관행이 더 지배”²²⁾적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사설은 독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바깥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신문사가 사설을 통해 바깥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신문사의 견해와 주장이 담긴 신문 사설은 신문사의 가치와 이념이 의도적으로 내포되어 독자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과 정책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사가 사설을 통해 어떠한 지배적인 담론을 생산해내는지 되짚어 보는 것은 저널리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공통 관심 현안인 핵 문제보다는 자국의 관심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 이익의 범주 안에서 국제 뉴스를 보도한다고 가정할 때²³⁾,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공식 사설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했으며, 또 어떠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보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한국의 주요 신문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양자의 특징, 즉 한일 신문이 ‘북미정

20) 홍주현·김경희(2017) 상동, p.162
 21) 이완수·배재영·박경우(2016) 상동, p.132
 22) 이완수·배재영·박경우(2016) 상동, p.132
 23) 서라미·정재민(2007) 상동, pp.237-269

상회담'이라는 동일 사안을 어떻게 같게 혹은 다르게 보도했는지를 한층 더 명확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정상회담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 평가 및 시사점, 정상회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 북핵 문제 해결 방향 및 과제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저널리즘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그 대부분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국 혹은 주변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다. 그에 비해 정상회담에 대한 국가 간 언론보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 및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국가 간 언론보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설원태(2011)²⁴⁾는 프레임 이론을 원용하여 1948년부터 2009년까지 열린 51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한미 양국의 주요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의 주요 신문은 보도량, 취재원, 기사 유형, 보도 주제, 보도 논조는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 보도 프레임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연구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동일 사안을 두고도 한미 언론의 보도 양상의 차이가 얼마나 '비대칭적(asymmetry)'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4월에 개최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을 한·미·중 3국의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비교 분석한 진명지와 박경숙(2020)²⁵⁾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한편, 보도 프레임 관점과는 별개로 언어표현 기반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연구한 사례도 발견된다. 노보경과 반현(2019)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국과 미국의 신문이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지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를 근간으로 각 신문의 사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양국의 신문이 서로 다른 담론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격과 역량에 해당하는 감정 평가어를 이용하여 하노이 회담 결렬을 초래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 평가어를 이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신문들은 회담의 결렬 원인보다는 향후 과제 및 전망 쪽에 무게를 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설원태(2011)『한미정상회담 보도 비교 연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비대칭 보도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진명지·박경숙(2020) 상동, pp.169-193

그러나 향후 과제 및 전망 논의에 있어서는 신문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부정적 행위 평가어를 이용하여 현 정부의 정책과 향후 대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었던 반면,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에 부정적인 평가어 보다는 당부와 조언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미들을 활용하여 정부에 대해 부탁과 당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언론은 정상회담이라는 동일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보도 내용과 관점을 다르게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설원태(2011)의 지적대로 정상회담 보도는 언론사가 소속된 국가의 이익이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⁶⁾ ‘국가 이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이다. 이 용어는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내용과 관점 또한 상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미정상회담 보도는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특별한 국제 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에 대해 당사국의 관점이 아닌 이해 당사국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보도에 있어 각국의 언론이 얼마나 ‘정보전달’과 ‘환경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와 같은 문제 역시 중요한데, 이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그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주변국인 일본의 신문 보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동일 사안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비교 분석하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26) 설원태(2011) 상동, p.29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한일 양국의 일간지는 북미정상회담 관련 사설 보도량(사설 건수)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 문제 2: 한일 양국의 일간지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의제는 무엇이고, 또 보도하는 의제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 문제 3: 한일 양국의 일간지는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어떠한 논조로 보도했는가?

3.2 연구 방법

3.2.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간

본 연구에서는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보수 및 진보 성향의 신문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보수적 성향의 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신문인 <한겨레>²⁷⁾, 일본의 경우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²⁸⁾을 그에 상응하는 신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제1차 정상회담과 제2차 정상회담 두 시기로 나누었다. 먼저 1차 기간은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발표된 2018년 5월 10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8년 7월 12일까지이다. 다음으로 2차 기간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발표된 2019년 1월 19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2월 27~28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9년 3월 28일까지이다²⁹⁾.

3.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에 필요한 사설을 수집하기 위해 <한겨레>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신문 기사

27) 김경희·노기영(2011)은 사실에 나타난 신문사들의 정치이념과 경제이념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을, <한겨레>는 진보 성향을 띤다는 것을 밝혔다.

28) 일본의 문화통신(文化通信) 온라인이 일본 ABC 협회의 조사 결과(2020년 하반기 판매 부수 기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이 738만 부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사히신문>이 494만 부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 두 신문은 일본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小林·竹本 2016; 竹川 2012).

29) 정상회담이 종료된 날에 한 달을 더 분석 기간에 포함한 이유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KINDS에서, <조선일보>는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수집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사를 수집했다. 해당 검색어는 한일 모두 ‘정상회담’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북미정상회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단순 정치 동향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 대상에 선정된 사설의 수는 한국 일간지의 경우 <조선일보>가 75건(1차 47건, 2차 28건), <한겨레>가 60건(1차 32건, 2차 28건)으로 집계되었고, 일본 일간지의 경우 <요미우리신문>이 20건(1차 14건, 2차 6건), <아사히신문>이 14건(1차 9건, 2차 5건)으로 집계되었다.

수집한 데이터는 양적 및 질적 분석 방법 두 가지를 혼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양적분석을 위해 텍스트형(문장형)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KH Coder 3.00 (樋口, 2020³⁰⁾’를 이용하였다. ‘KH Coder’는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의樋口(히구치) 교수가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자유 응답식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기록, 신문 기사 등 여러 가지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KH Coder’를 이용하여 비정형 데이터인 신문 기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통일하는 작업과 함께 명사와 조사를 띄우는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신문 기사 본문 텍스트에서 신문사나 기자 이름 등 분석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어들은 삭제하였으며(예: ‘현지’, ‘시각’ 등),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한글로 변환하였다. 셋째, 중복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켰다(예: ‘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등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단어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장관’, ‘폼페이오 미국 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넷째, KH Coder 상에서는 ‘한딕(ハンディク, HanDic)³¹⁾을 이용하여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예: CVID, 영변 등)은 강제로 추출하였다.³²⁾

위와 같은 작업 후,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사안인 북미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각 일간지가 어떠한 의제에 주목하여 사설을 게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연구 문제 2>에 해당), ‘KH Coder’의 ‘공기 네트워크(共起ネットワーク, Co-occurrence Network)’ 분석을 실행하였다. 텍스트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를 ‘공기(共起, Co-occurrence)’라고 부르고, 공기 횟수가 높은 단어(동시 출현 횟수가 높은 단어)들을 선으로 연결한 그림을 ‘공기 네트워크(共起ネットワーク,

30) 樋口耕一(2020)「KH Coder 3 リファレンス・マニュアル」, <http://kxcoder.net/dl3.html> (검색일: 2021년 7월 11일)

31) 한딕(ハンディク, HanDic)은 오픈소스 형태소분석 엔진인 Macab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용 사전이다.

32) KH Coder에서는 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를 강제로 추출할 수 있는 ‘태그(タグ, tag)’ 기능이 있어, ‘강제로 추출할 어휘’와 “사용하지 않은 어휘”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Co-occurrence Network)’라고 한다. 이 공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텍스트 내에서 단어들이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가에 따라 보도의 시각이나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기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시각화하여 나타냄으로써 텍스트 내에 잠재된 핵심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기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난 단어를 중심으로 관련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각 일간지의 보도 논조를 파악(〈연구문제3〉)하기 위해서이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문제 1: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주요 신문 사실 보도량 비교

〈연구 문제 1〉은 ‘한일 양국의 일간지가 북미정상회담 관련 사실 보도량(사실 건수)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의 보도량은 보도 내용 및 논조와 관계없이 신문사가 해당 현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 양국의 일간지가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사안을 얼마나 사실에 자주 실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신문사별 사실 보도량은 전체 169건의 사실 중 <조선일보>가 75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한겨레신문> 60건(35.5%), <요미우리신문> 20건(11.8%), <아사히신문> 14건(8.3%)으로 나타났다.

〈표 1〉 신문사별 사실 보도량

단위: 건(%)

신문사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	아사히	전체
사실 건수	75(44.4%)	60(35.5%)	20(11.8%)	14(8.3%)	169(100%)

시기별 사실 보도량은 〈표 2〉에서 보듯이, 1차 회담이 102건(60.4%), 2차 회담이 67건(39.6%)으로 나타나 1차 회담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한겨

레신문>을 제외한 세 개 신문사의 2차 회담의 보도량은 1차 회담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기별 사설 보도량

단위: 건(%)

시기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	아사히	
1차	47(62.7)	32(53.3)	14(70)	9(64.3)	102(60.4)
2차	28(37.3)	28(46.7)	6(30)	5(35.7)	67(39.6)
전체	75(100)	60(100)	20(100)	14(100)	169(100)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가별 사설 보도량을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신문이 135건으로 전체 사설 보도량의 7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신문은 34건으로 2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신문이 일본 신문보다 이번 정상회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국가별 사설 보도량

단위: 건(%)

국가	한국	일본	전체
사설 건수	135(79.9%)	34(20.1%)	169(100%)

신문사의 이념 성향별 사설 보도량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진보 성향의 신문(74건, 43.8%)보다 보수 성향의 신문(95건, 56.2%)의 보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보수언론이 진보언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 신문사의 이념 성향별 사설 보도량

단위: 건(%)

이념 성향	보수	진보	전체
사설 건수	95(56.2%)	74(43.8%)	169(100%)

4.2 연구 문제 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주요 신문 사설 의제 비교

4.2.1 한국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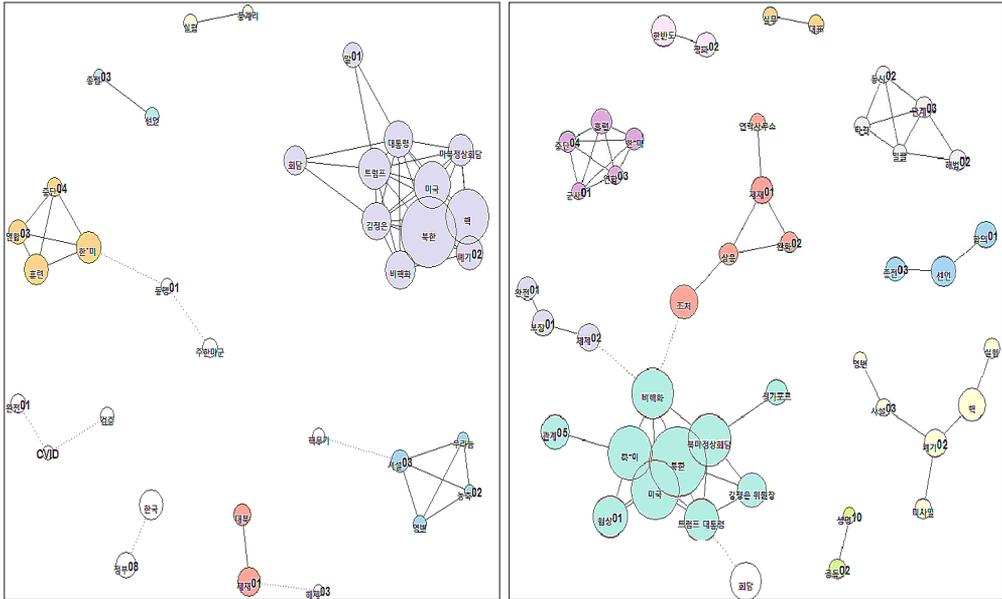
<연구 문제 2>는 ‘한일 양국의 일간지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의제는 무엇이고, 또 보도하는 의제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였다. 공기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핵심 단어들의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해서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은 그룹으로 묶어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즉,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 주제를 가지는 단어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분석 기법을 공기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각 일간지가 정상회담 현안과 관련하여 어떤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림 안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관계망의 구성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단어(node, 키워드)’와 ‘선(edge)’으로 이루어져 있다³³⁾. 텍스트로부터 추출된 단어는 원으로 표현된다. 두 단어를 연결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표시된다. 동일 그룹에 포함된 단어들은 실선으로 연결되는 반면, 다른 그룹에 포함된 단어들은 파선으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원의 크기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텍스트 내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의미한다. 또한 단어 간 연결선의 굵기는 ‘공기 관계의 강도’에 비례한다. 즉,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결선의 굵기가 굵게 표시된다.

<그림 1>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Jaccard 계수³⁴⁾가 0.2 이상이고, 명사와 대명사 단어를 대상으로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33) 히구치(2020)의 연구에서는 ‘노드(ノード, node)’와 ‘엣지(エッジ, edge)’로 지칭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와 ‘선’으로 각각 지칭했다.

34) Jaccard 계수는 두 집합의 요소 중 공통요소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한다. KH Coder에서는 단어와 단어 간의 공기 관계의 강약을 Jaccard 계수의 크기로 판단한다. Jaccard 계수가 0.1 이상이면 단어 간의 공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며, 0.2 이상이면 단어 간의 공기 관계가 강하다고 해석한다.



<그림 1> 조선일보(좌측)와 한겨레(우측)의 공기 네트워크 분석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한 결과 8개의 하위 그룹이 도출되었다.³⁵⁾ 8개의 하위 그룹을 토대로 각 일간지의 사설 의제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핵화 문제 및 정상회담의 의제를 다루는 경우 ‘의제 종합’,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경우 ‘CVID’, 일괄·타결 방식 및 단계적·동시적 방식 문제를 다루는 경우 ‘비핵화 이행 방식’,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문제를 다루는 경우 ‘영변 및 풍계리 핵시설’, 대북 제재 완화 및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를 다루는 경우 ‘상용 조치’, 종전 선언 문제를 다루는 경우 ‘종전 선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를 다루는 경우 ‘한미연합훈련’, 주한 미군 문제를 다루는 경우 ‘주한미군’,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및 북미 간 실무회담을 다루는 경우 ‘실무회담’, 그 외의 경우 ‘기타’로 분류했다. 또한 각 그룹의 의제는 공기 네트워크에 나타난 단어들이 사설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붙였다.

35) 본 연구에서는 다른 색상을 띠는 그룹이지만 동일 주제를 나타내는 그룹은 같은 그룹으로 묶었다. 예컨대, ‘영변-우라늄-농축-시설’이라는 그룹과 ‘풍계리-실험’이라는 그룹은 각기 다른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있지만, 핵시설 폐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체제-완전-보장’이라는 그룹과 ‘상용-조치-제재-완화’라는 그룹은 상용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 5>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선일보’의 주요 의제

세부 의제	주요 단어
의제 종합	북한, 미국, 미북정상회담, 회담, 핵, 비핵화, 폐기, 김정은, 트럼프, 말
CVID	CVID, 완전, 검증
영변/풍계리 핵시설	영변, 시설, 우라늄, 농축, 풍계리, 실험
상응 조치	대북, 제재
중전 선언	중전, 선언, 합의
한미연합훈련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주한미군	주한미군, 동맹
기타	한국, 정부

<표 6>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겨레’의 주요 의제

세부 의제	주요 단어
의제 종합	북한, 미국, 북미정상회담, 회담, 비핵화, 협상, 정상, 김정은, 트럼프
비핵화 이행 방식	단계, 동시, 일괄, 타결, 해법
영변/풍계리 핵시설	영변, 시설, 핵, 실험, 폐기, 미사일
상응 조치	제재, 완화, 상응, 조치, 연락사무소, 체재, 완전, 보장
중전 선언	중전, 선언
한미연합훈련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실무회담	대표, 실무
기타	한반도, 평화

공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양 신문이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핵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8개의 그룹 가운데에서도 3개의 그룹에서 핵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출현 횟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 가운데 ‘핵’과 ‘비핵화’라는 단어의 출현 횟수는 <조선일보>에서 505회(2위)와 248회(5위)³⁶⁾, <한겨레>에서는 96회(13위)와 240회(5위)³⁷⁾ 각각 등장했다. 인명이나 국명을 나타내는 단어를 제외하면

36) <조선일보>의 전체 데이터에서 추출된 단어 중 출현 횟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순위대로 나열해 보면, 북한(839회), 핵(505회), 미국(352회), 트럼프(276회), 비핵화(248회), 김정은(238회), 대통령(211회), 폐기(198회), 한미(176회), 미북정상회담(171회) 순이었다.

37) <한겨레>의 전체 데이터에서 추출된 단어 중 출현 횟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순위대로 나열해보면, 북한(437회), 미국(308회), 북미(270회), 북미정상회담(254회), 비핵화(240회), 트럼프(162회), 협상(161회), 회담(128회), 남북(125회), 관계(110회) 순이었다.

‘핵’ ‘비핵화’라는 단어가 양 신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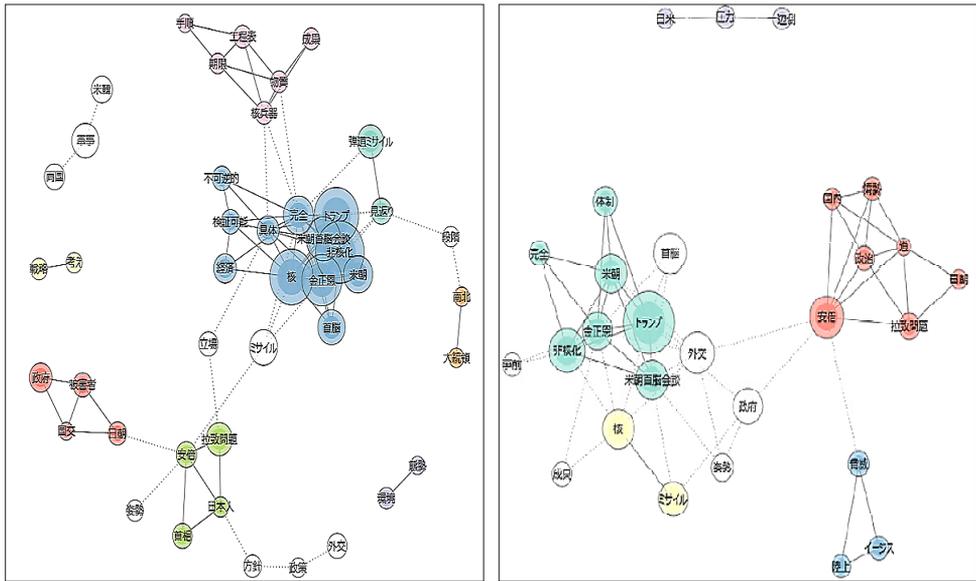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첫 번째로 <조선일보>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원칙으로 일관되게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CVID-완전-검증’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독립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개념으로 강조해 온 ‘CVID’를 하나의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에서는 비핵화 이행 방식과 관련된 단어들이(일괄-타결-단계-동시-해법)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한미군’ ‘동맹’ ‘한미’라는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한겨레>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북 및 실무회담에 관한 의제가 눈에 띄고 있었다.

세 번째로, 이번 정상회담을 거론할 때 <조선일보>에서는 ‘미북정상회담’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던 반면에, <한겨레>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상회담 표기와 관련하여 어떤 국가를 앞에 표기하는가에 따라 양 신문이 어떤 국가에 더 방점을 두고 보도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4.2.2 일본 신문

<그림 2>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요미우리신문(좌측)과 아사히신문(우측)의 공기 네트워크 분석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한 결과 <요미우리신문>에서는 6개, <아사히신문>에서는 4개의 하위 그룹이 도출되었다.³⁸⁾ <표 7>과 <표 8>은 공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 신문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룬 주요 의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핵화 문제 및 정상회담의 의제를 다루는 경우 ‘의제 종합’,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을 다루는 경우 ‘비핵화 공정표’, 대북 제재 완화 및 북한의 체재 보장 문제 등을 다루는 경우 ‘상응 조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를 다루는 경우 ‘한미연합훈련’,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는 경우 ‘납치 문제’, 회담과 관련하여 대북정책을 다루는 경우 ‘일본의 대북정책’, 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과제 등을 다루는 경우 ‘일본 정부 정책’, 그 외의 경우 ‘기타’로 분류했다. 또한 각 그룹의 의제는 공기 네트워크에 나타난 단어들이 사설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붙였다.

38) 한국 신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색상을 띠는 그룹이지만 동일 주제를 나타내는 그룹은 같은 그룹으로 묶었다. 예컨대, 그룹1(피해자-정부-국교-북일)과 그룹2(방침-정책-외교)는 그룹3(납치 문제-아베-수상-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납치 문제에 대한 주제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세 그룹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한 ‘육상-이지스-위협’이라는 그룹과 ‘일미-압력-일변도’라는 그룹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 7>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미우리신문’의 주요 의제

세부 의제	주요 단어
의제 종합	미조수뇌회담(米朝首腦會談; 북미정상회담), 미조(米朝; 북미), 수뇌(首腦), 김정은(金正恩), 트럼프(トランプ), 완전(完全), 검증 가능(檢證可能), 불가역적(不可逆的), 비핵화(非核化), 구체(具體), 경제(經濟)
비핵화 공정표	핵무기(核武器), 물질(物質), 성과(成果), 공정표(工程表), 수순(手順, 절차), 기한(期限)
상응 조치	보상(見返り), 탄도미사일(彈道ミサイル), 단계(段階), 남북(南北), 대통령(大統領)
한미 연합 훈련	미한(米韓), 군사(軍事), 양국(兩國)
납치 문제	납치문제(拉致問題), 아베(安倍), 수상(首相), 일본인(日本人), 피해자(被害者), 정부(政府), 국교(國交), 일조(日朝; 북일), 방침(方針), 정책(政策), 외교(外交)
기타	전략(戰略), 생각(考え), 환경(環境), 태세(態勢)

<표 8> 공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아사히신문’의 주요 의제

세부 의제	주요 단어
의제 종합	미조수뇌회담(米朝首腦會談; 북미정상회담), 미조(米朝; 북미), 김정은(金正恩), 트럼프(トランプ), 완전(完全), 비핵화(非核化), 체제(體制)
납치 문제	납치문제(拉致問題), 일조(日朝; 북일), 아베(安倍), 정치(政治), 도리(道), 국내(国内), 정세(情勢)
일본의 대북정책	일미(日米), 압력(壓力), 일변도(一辺倒), 육상(陸上), 이지스(イージス), 위협(脅威)
일본 정부 정책	정부(政府), 외교(外交), 자세(姿勢), 성과(成果)

공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두 신문이 ‘비핵화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도 발견된다.

첫 번째로 ‘비핵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두 신문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요미우리신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사히신문>은 “완전한 비핵화(CD; 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요미우리신문>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및 상응 조치,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의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사히신문>보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담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과제, 대북정책,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한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대북정책에 관해 <아사히신문>은 ‘압력’ ‘일변도’와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이 담긴 단어들 등장하고 있다. 또한 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 イージス・アショア³⁹⁾)’과 관련한 의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4.3 연구 문제 3: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주요 신문 사설 논조 비교

4.3.1 한국 신문

<연구 문제 3>은 ‘한일 양국의 일간지는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어떠한 논조로 보도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와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토대로 신문 사설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문제 2>의 결과에서 <조선일보>가 비핵화 용어 중 하나인 ‘CVID’를 하나의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보 성향의 신문인 <한겨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공기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를 토대로 관련 사설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조선일보>는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핵 폐기 시한과 CVID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2018년 6월 12일자 사설에서 “이번 회담의 성패 판단은 복잡하지 않다. 공동성명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됐다고 해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실천한다는 명백한 합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6월 13일자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핵 폐기 시한(時限)과 CVID의 공동성명 포함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핵 폐기 시한이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한마디만 담겨 있어 “이번 미북 정상 합의문은 13년 전 6자회담 공동성명보다도 더 뒷걸음친 것이다”라고 적시하였다.

39) ‘이지스 어쇼어’란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일본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이다(박장군, 「글썽」 고노 방위상, 눈물로 이지스 어쇼어 포기 발표」 『국민일보』 2020년 6월 25일,

<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cid=0014732261&code=61131211&cp=nv> (검색일: 2021년 8월 2일)

둘째, <한겨레>에서는 비핵화 이행 방식과 관련한 의제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보수 성향의 신문인 <조선일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공기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일괄·타결·단계·동시·해법)를 바탕으로 관련 사설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한겨레>는 2019년 3월 12일에 ‘협상 여지 좁히는 미국식, “빅딜 해법”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겨레>는 미국 정부가 제시해 온 일괄타결 비핵화 해법은 “북·미 신뢰가 허약한 상황에서 역효과만 낼 가능성이 크다”라며 미국식 북핵 해법을 우려하고 있다. 그 외의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미국 정부가 ‘일괄타결 비핵화 해법’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다.

셋째, 상응 조치와 관련하여 양 신문은 서로 다른 관점과 맥락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겨레>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나타내는 ‘제재’ ‘완화’ ‘상응’ ‘조치’ ‘체제’ ‘완전’ ‘보장’이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기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를 토대로 관련 사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조선일보>는 2018년 7월 9일 자 ‘한·미·일 “북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이것만은 지켜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2018년 7월 8일 자 ‘기대 못 미친 폼페이오 방북, 북미 한발씩 양보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쪽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며 핵 신고·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체제보장이나 제재 완화의 시간표는 내놓지 않아 북한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넷째, <조선일보>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의제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 사설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한겨레>에서는 북미 간 실무회담과 관련한 의제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었다. 관련 기사를 확인한 결과, <한겨레>는 2018년 5월 28일 자 사설에서 북미가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실무협상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6월 3일 자 사설에서도 신문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던 북한과 미국이 다양한 실무 접촉과 김영철의 미국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전달 등을 통해서 조금은 더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한 신뢰를 쌓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이런 분위기가 싱가포르 정상회담뿐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 <연구 문제 2>에서 ‘기타’로 분류된 의제 가운데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 <한겨레>는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기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를 토대로 관련 사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는 북미 간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하는 등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5월 26일자 ‘반드시 되살려야 할 미·북 회담, 한미 공조 이 상태론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 비핵화도 제대로 관철하려면 한국 정부가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설득하는 존재인 것처럼 돼 있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북미협상을 중재하기보다는 “한미가 다시 강력한 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다. 반면, <한겨레>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여는 포석으로 이어져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4.3.2 일본 신문

신문 사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첫째 <요미우리신문>은 비핵화의 공정표와 관련한 의제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기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를 참조하면서 관련 사설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6월 13일자 사설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오랜 기간 적대관계였던 북미 두 정상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공동성명 합의문에 “비핵화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성 결여”라는 한계점도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합의문에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들어있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 1월 27일자 사설에서도 지난해 6월에 열린 제1차 정상회담은 모호한 합의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문은 2차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 관련 시설의 전모를 파악하고, (핵) 완전 폐기를 위한 공정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용어와 관련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진보 성향의 신문인 <한겨레>와 <아사히신문>이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이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대조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용어의 사용만 다를 뿐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논조는 대동소이했다. 예컨대, <아사히신문>은 2018년 6월 13일자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65년 만에 북미 두 정상이 만나 획기적인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두 정상 간의 합의문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공정도, 시기도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둘째, <아사히신문>은 ‘납치 문제’ ‘일본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과제’ ‘대북정책’ 등 자국 문제와 관련된 의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기 네트워크로부터 도출된 핵심 단어를 참조하면서 관련 사설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아사히신문>은 2018년 6월 9일 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부추기고, 방위 정책의 전환과 방위력증강을 추진해왔지만, 대미 일변도와 (대북) 압력 일변도의 외교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라면서 아베 정부가 “이제까지의 외교 효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현실에 입각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13일 자 사설에서도 <아사히신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일본의 전후 최대 외교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조성을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밖의 사설에서도 일관적으로 아베 정권의 대미 외교 및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국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정책과 직결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과 관련한 의제가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사히신문>은 2018년 5월 30일 자 사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 관련국의 외교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민당이 군비증강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2018년 6월 27일 자 사설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 완화 흐름으로 들어섰는데 “육상 이지스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동 신문은 6월 27일 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육상형 이지스를 도입하려 한다고 하지만, 근본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하게 요구”받은 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19일 자 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상당한 비용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아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서는 자국 문제와 관련하여 ‘납치 문제’와 관련된 의제가 두드러졌다. 관련 기사를 확인한 결과, 동 신문은 2018년 6월 9일 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고 언급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밖의 사설에서도 동 신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통해 양국의 언론이 동일 사안인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가별 그리고 신문별로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설 보도량(사설 건수)을 보도했는지,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의제는 무엇이고, 그 의제와 관련해 어떠한 논조로 보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먼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신문의 사설 보도량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보도량에서는 한국 신문들이 일본 신문들보다, 이념 성향별 보도량에서는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들보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사설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한국 신문과 보수적 성향의 신문이 일본 신문과 진보적 성향의 신문보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이슈를 더 비중 있게 다뤘음을 알 수 있다. 회담 시기별 보도량에서는 1차 회담이 2차 회담보다 사설의 보도량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1차 회담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주요 신문들이 어떠한 의제들을 설정했으며, 그 의제와 관련해 어떠한 논조로 보도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신문의 경우 회담과 관련하여 두 신문사 간 의제 설정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일 의제를 설정했음에도 전혀 다른 관점과 맥락에서 해석되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신문사는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비핵화’ 문제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비핵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언론 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VID’를 하나의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반면 <한겨레>는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이 사설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CVID’와 ‘CD’라는 용어 간에는 실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비핵화 용어의 선택적 사용은 비핵화 문제를 바라보는 해당 신문사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두 신문사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CVID’를 통한 비핵화 합의 및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사설이 많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겨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설이 많았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던 것에 비해, <한겨레>는 북미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다.

둘째, 일본 신문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양 신문의 의제와 논조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납치 문제와 육상 이지스 문제 등 일본 정부의 정책과 태도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양 신문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양 신문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와 ‘납치 문제’가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축을 중심으로 ‘육상 이지스 문제’와 ‘대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나 결과를 두고 두 일간지 모두 논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납치 문제’ ‘육상 이지스 문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논조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즉, <요미우리신문>이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아사히신문>은 대미협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동일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신문의 보도 태도가 ‘국가 이익’과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설을 통해 설정한 의제는 대동소이했지만, 의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해법은 신문의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는 한국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이슈⁴⁰⁾가 되어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언론의 경우 비핵화 문제 등 국제 공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국 문제와 관련한 의제에서는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언론이 납치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 문제 더 나아가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신문사별 정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그 결과, 정상회담 성과 및 북한 관련 일본언론의 논조가 안보 강화를 근거로 대북 강경 입장을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언론보도 방식이 양국의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한국 언론의 경우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하여 이념 편향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보도 방식은 자칫 수용자가 특정한 이념에 경도된 사고방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각 신문이 나름의 관점과 이념성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은 오히려 수용자의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할

40) 이완수·손영준(2011) 상동, p.177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언론은 반복 정서에 편승하여 민족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보도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북미정상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화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자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 방식은 수용자의 이념적 사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특정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있다. 미디어가 특정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주는 사건이나 사안을 보도하면 할수록, 뉴스를 접한 수용자는 그 국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⁴¹⁾.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제 뉴스 보도의 올바른 역할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수용자에게 국제 뉴스를 어떠한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방법 또한 기존의 틀과 패러다임을 탈피해 ‘KH Coder’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상회담을 분석 대상으로 한 한국과 일본 신문의 비교 연구가 국내에서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분석 대상이 된 신문들만으로 도출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TV 뉴스와 인터넷 언론 등 연구자료를 확장시킨다면 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매체별 차이뿐만 아니라 양국 언론의 보도 양상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 김경희·노기영(2011)「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한국언론학보』제55권 제1호, pp.361-387
- 김동윤·오명원(2015)「한일 언론과 일본군위안부: 보도 양상 및 미디어 프레임 분석」『일본근대학연구』제50호, pp.141-170
- 김성해·심영섭(2010)『국제 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호준(1998)『사설이란』서울: LG상남문고
- 김희범·우형진(2016)「한국과 일본 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 프레임 유형 특성 연구」『미디어, 젠더 & 문화』제31권, pp.81-123
- 노보경·반현(2019)「언어표현 기반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의 비교」『문화기술의 융합』제5권 제3호, pp.125-130

41) 김성해·심영섭(2010)『국제 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라미·정재민(2007)「한중일 3국 신문의 8.15 보도 비교분석」『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37호, pp.237-269

설원태(2011)『한미정상회담 보도 비교 연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비대칭 보도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설원태(2012)「한미정상회담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미디어, 젠더 & 문화』제21권, pp.41-72

와타나베(2014)『2002년 북일정상회담 전후 일본 신문 사설 양상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완수·배재영·박경우(2016)「아베 내각의 일본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에 나타난 보도 프레임의 역동적 과정」『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79호, pp.104-139

이완수·손영준(2011)「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재구성」『한국언론정보학보』제56권 제4호, p.177

이준웅(2001)「매체 효과와 사회 심리적 조건의 매커니즘: 문화계발 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신문과 방송』제377호, p.443

이지영(2019)『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담론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8

진명지·박경숙(2020)「한국·미국·중국 신문의 미중정상회담 보도 내용 분석」『국제학논총』제31집, pp.169-193

최용한·이수형(2020)『북핵과도기 한국의 안보 정책 과제와 쟁점』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56

홍주현·김경희(2017)「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제19권 제1호, pp.162-177

小林哲郎·竹本圭祐(2016)「新聞読者は極性化しているか」『日本世論調査協会報「よろん」』117巻, pp.22-26

竹川俊一(2012)「社説と報道によるフレーミング分析: 2001年歴史教科書問題に関する朝日と読売を事例に」『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80巻, pp.211-229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박장군「‘글썩’ 고노 방위상, 눈물로 이지스 어쇼어 포기 발표」『국민일보』(2020년 6월 2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32261&code=61131211&cp=nv> (검색일: 2021년 8월 2일)

樋口耕一(2020)「KH Coder3リファレンス・マニュアル」, <http://kncoder.net/dl3.html> (검색일: 2021년 7월 11일)

「<ABC協会新聞発行社レポート> 2020年下半期平均部数 新聞各社が前年同期比減、子ども向けの新聞は好調」『文化通信』2021년 2월 10일, <https://www.bunkanews.jp/article/228102/> (검색일: 2021년 7월 6일)

논문투고일 : 2021년 09월 19일
 심사개시일 : 2021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21년 11월 09일
 2차 수정일 :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0일

<要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한일 신문 사설 비교 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

김선영

이 연구는 한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통해 양국의 언론이 동일 사안인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한일 양국의 보수와 진보 신문을 대표하는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으로 삼았으며, 분석 방법은 빅데이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KH Coder’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보도량에서는 한국 신문들이 일본 신문들보다, 이념 성향별 보도량에서는 보수신문들이 진보 신문들보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사설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담 시기별 보도량에서는 1차 회담이 2차 회담보다 사설의 보도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 신문의 보도 양상은 국가 이익과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설을 통해 설정한 의제는 대동소이했지만, 의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해법은 신문의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는 한국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이슈였으나,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 언론의 경우 비핵화 문제 등 국제 공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국 문제와 관련한 의제에서는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 언론이 납치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 문제 더 나아가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신문사별 정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제 뉴스 보도의 올바른 역할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수용자에게 국제 뉴스를 어떠한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 Newspaper editorials
on the ‘U.S.-North Korea Summit’**

- The Chosun Ilbo, the Hankyoreh, the Yomiuri Shimbun, and the Asahi Shimbun -

Kim, S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rough the editorials of the major newspapers of the two countries, how the press media of Korea and Japan view their same issue, North Korea-the US Summit Talks.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were <The Chosun Ilbo> and <Hankyoreh>, <Yomiuri Shimbun> and <Asahi Shimbun> representing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of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s the research methods, the big data open source software ‘KH Coder’ was utilized.

The analytic results revealed that for the report volume of each country, Korean newspapers report more editorials about North Korea-the US Summit Talks, compared to Japanese newspapers, and for the report volume of ideological predisposition, conservative newspapers dealt with more editorials about the summit talks, compared to progressive newspapers. For the report volume of talks period, it was revealed that the 1st summit talk reports more editorials about the summit talks, compared to the 2nd summit talk.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report pattern of newspapers of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bout North Korea-the US Summit Talks, according to national interests and press media’s ideological predispositions. In the press media of Korea, the agendas set in the editorials were generally similar but the views and solutions for the agendas were clear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newspaper had conservative and liberal stanc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the key agenda for the Summit Talks and such issue expressed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of the Korean newspapers the most directly. In the research results, the Korean newspapers showed the ideological bias over the denuclearization issue. Meanwhile, Japanese newspapers did not show the ideological bias over the common international agendas such as the denuclearization. However, Japanese newspapers clearly showed the ideological bias over the agendas related to issues in Japan. It is analyzed that the Japanese newspapers did not show the partisanship on the Summit Talks reports clearly because the Japanese press media viewed the Summit Talks in relation to the abduction issues.

The analysis results implied on the needs for contemplating about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news report and think again about the standpoints of the readers living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on the international news.